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 도 자 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배 포 일	2021. 12. 13. 시 이후	매 수	총 1매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부장 성연민(02-3415-6930)
			선임 이상아(02-3415-6934)

2021년 제4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청년 빈곤층 유입과 자활사업’

- 2021년 제4회 자활정책포럼 개최(12. 8,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빈곤 청년 대상 자활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년 빈곤층 유입과 자활사업’이라는 주제로 제 4회 자활정책포럼을 통해 12월 08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승윤 부위원장,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김승오센터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206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은 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 김소형센터장,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의 발제 후,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 발표 1: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 * 발표 2: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현황 및 양적 성과”
- * 발표 3: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실태조사로 본 참여자 효과성”

토론에서는 청년 대상 자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과 의견들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승윤 부위원장은 빈곤 청년들이 지니는 사회적 장벽과 문제들을 청년층의 특화된 청년

자립도전단 사업단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하였고, 김승오 센터장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정책과 관련하여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자활정책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를 통해 저소득 참여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